

2026년 국가직 9급

형사소송법 출제 경향 강평

응시생 통계 데이터 반영 분석판

※ Q1~Q13 형사소송법개론 동일 · Q14~Q20 형사소송법 고유 문항

이윤탁 형사법 연구실 | 2026

I. 총평 (Overview)

2026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개론과 Q1~Q13을 공유하면서도 Q14~Q20에서 체포·구속적부심사, 검찰항고·재정신청, 공판기일 절차, 증인신문(선서 없는 화상진술),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,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,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증거능력 등 심화 영역을 추가로 출제하였다. 문항별 정답률 산술평균은 약 71.5점으로, 같은 Q1~Q13을 공유하는 형사소송법개론(69.6점) 대비 소폭 높았으나, Q8(46%)·Q10(52%)·Q1(55%)·Q13(59%) 4 문항에서 수험생 과반이 여전히 오답을 선택했다.

구분	내용
추정 평균 점수	약 71.5점 (문항별 정답률 산술평균 기반 추정 — 개론 69.6점 대비 +1.9점)
고유 문항(Q14~20) 평균	74.4% — 개론 Q1~13 평균(69.2%)보다 5.2%p 높음. 고유 문항이 상대적으로 쉬웠음
최고 난이도 문항	Q8 정답률 46%(최저), Q10 52%, Q1 55%, Q13 59% — 개론과 동일한 4문항에서 집중 실패
최고 정답률 문항	Q16 정답률 84%(최고, 국민참여재판 항고 여부), Q3 85%, Q20 83%
Q14~20 핵심	Q17(2024판례 선서없는 화상진술 위법성 치유 불가) / Q18(동의해도 증거능력 없음) / Q15(검찰항고 기관 함정)

추정 평균 (형사소송법)

71.5점

개론 대비 차이

+1.9점

최저 정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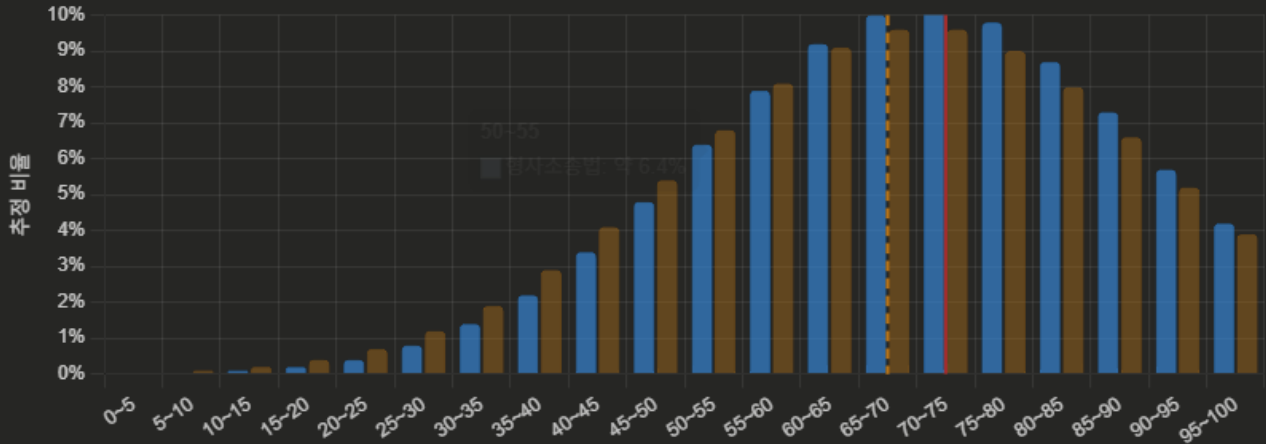
Q8 — 46%

최고 정답률

Q3 — 8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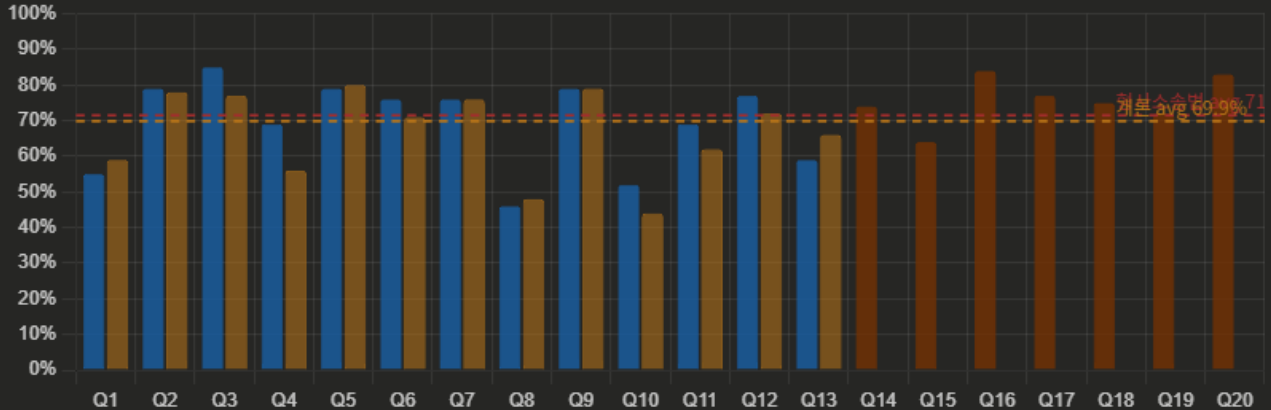
점수 분포 (추정 — 평균 71.5점 기준 정규분포 근사)

■ 형사소송법 ■ 형사소송법개론 (참고) ■ 형사소송법 평균 (71.5점) ■ 개론 평균 (69.6점)



문항별 정답률 — 형사소송법 vs 형사소송법개론

■ 형사소송법 ■ 형사소송법개론 ■ 고유 문항 (Q14~Q20)



II. 문항별 정답률 및 선택지 분포 분석

1. 전체 20 문항 선택지 분포표

※ 정답 선택지 → 녹색 굵은 글씨 / 오답이지만 20% 이상 선택된 주요 오답 → 주황색 배경

문항	정답	①	②	③	④	정답률	개론	난이도
----	----	---	---	---	---	-----	----	-----

Q1	3번	4%	34%	55%	4%	55%	-4%	상(어려움)
Q2	2번	8%	79%	2%	9%	79%	+1%	하(쉬움)
Q3	1번	85%	4%	8%	2%	85%	+8%	하(쉬움)
Q4	3번	17%	8%	69%	4%	69%	+13%	중
Q5	2번	9%	79%	4%	6%	79%	-1%	하(쉬움)
Q6	3번	3%	13%	76%	5%	76%	+5%	하(쉬움)
Q7	4번	2%	2%	18%	76%	76%	0%	하(쉬움)
Q8	4번	17%	17%	18%	46%	46%	-2%	상(어려움)
Q9	4번	7%	7%	6%	79%	79%	0%	하(쉬움)
Q10	4번	5%	17%	23%	52%	52%	+8%	상(어려움)
Q11	1번	69%	10%	10%	9%	69%	+7%	중
Q12	4번	7%	7%	6%	77%	77%	+5%	하(쉬움)
Q13	1번	59%	7%	13%	20%	59%	-7%	상(어려움)
Q14★	2번	6%	74%	12%	6%	74%	—	중
Q15★	2번	4%	64%	22%	8%	64%	—	중
Q16★	3번	4%	6%	84%	4%	84%	—	하(쉬움)
Q17★	1번	77%	5%	10%	7%	77%	—	하(쉬움)
Q18★	1번	75%	9%	5%	9%	75%	—	하(쉬움)
Q19★	3번	4%	14%	72%	8%	72%	—	중
Q20★	1번	83%	5%	6%	4%	83%	—	하(쉬움)

★ = 형사소송법 고유 문항(Q14~Q20) / 개론 열: 동일 문항의 형사소송법개론 정답률 대비. 녹색(+) = 형사소송법이 더 쉬웠음, 주황(-) = 더 어려웠음.

Q1~Q13 정답률 차이 (형사소송법 - 개론)

막대가 위로 = 형사소송법이 더 쉬웠음 / 아래로 = 형사소송법이 더 어려웠음



Ⅲ. 난이도 종합 분석 (정답률 기반)

1. 난이도 구간별 분포

난이도	기준	문항 수	해당 문항 및 정답률
하 (쉬움)	75% 이상	11문항	Q2(79%) Q3(85%) Q5(79%) Q6(76%) Q7(76%) Q9(79%) Q12(77%) Q16(84%) Q17(77%) Q18(75%) Q20(83%)
중	60~74%	5문항	Q4(69%) Q11(69%) Q14(74%) Q15(64%) Q19(72%)
상 (어려움)	60% 미만	4문항	Q1(55%) Q8(46%) Q10(52%) Q13(59%)
합 계	전체	20문항	추정 평균 정답률: 71.5%

▶ 형사소송법 고유 문항(Q14~20) 7문항 중 5문항이 "하(쉬움)" 구간에 해당. Q15(64%)와 Q19(72%)만 중 구간. Q14~Q20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구조.

2. 형사소송법 vs 형사소송법개론 Q1~Q13 정답률 비교

문항	형사소송법	형사소송법개론	차이	분석
Q1	55%	59%	-4%p	형사소송법이 4%p 낮음. 신속재판 현재 결정 더 까다롭게 인식
Q2	79%	78%	+1%p	거의 동일. 제척사유 구속영장 = 기본 판례
Q3	85%	77%	+8%p	형사소송법이 8%p 높음. §33③ 국선번호 요건 더 정확히 학습
Q4	69%	56%	+13%p	형사소송법이 13%p 높음. 착오론 동기 포함 여부 더 잘 이해

Q5	79%	80%	-1%p	거의 동일. 면소 vs 공소기각 구별 기본 사항
Q6	76%	71%	+5%p	형사소송법이 5%p 높음. 사후영장 제시 의무 법리 더 정확
Q7	76%	76%	0%p	완전 동일(76%). 유류물 관련성 제한 법리
Q8	46%	48%	-2%p	거의 동일(2%p차). 긴급체포 숫자 변형 모두 어려움
Q9	79%	79%	0%p	완전 동일(79%). 공소장변경 기본 법리
Q10	52%	44%	+8%p	형사소송법이 8%p 높음. 형사조정조서 최신판례 다소 덜 어려웠음
Q11	69%	62%	+7%p	형사소송법이 7%p 높음. 기판력 범칙금 동일성 판례
Q12	77%	72%	+5%p	형사소송법이 5%p 높음. 상고심 사후심 구조
Q13	59%	66%	-7%p	형사소송법이 7%p 낮음 — 유일하게 개론보다 어려운 기출 문항. 국민참여재판 간이공판절차 배제 여부

▶ Q13(국민참여재판 — 간이공판절차 배제)이 형사소송법에서 유일하게 개론보다 정답률이 낮음(-7%p). 나머지 12문항은 동일하거나 형사소송법이 더 높음.

IV. 형사소송법 고유 문항 Q14~Q20 심층 해설

형사소송법에서만 출제된 7문항을 정답률 순으로 분석한다. "왜 틀렸는가"에 초점을 맞춘다.

▶ Q15 — 정답률 64% (고유 문항 중 최저) | 검찰항고·재정신청

선택지	선택률	오답 이유 분석
①번	4%	재정신청 시 공소시효 정지(§262의4①) → 정확한 조문. 함정 지문이 아님
②번 (정답)	64%	"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" → ×. 정확한 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(검찰청법 §10①). 검사→지방검찰청 경유→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
③번 (주오답)	22%	"재정신청인에게도 통지" → §262①은 피의자에게만 통지 규정. 그러나 22%가 이를 잘못된 내용으로 보고 ③번을 정답으로 선택. 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조문과의 혼동
④번	8%	재정신청 공소제기결정 하자 → 본안 개시 후 다룰 수 없음(대판 2017도 13465) → 정확한 판례. 맞는 지문

⇒ 핵심 함정: "지방검찰청 검사장" vs "고등검찰청 검사장" — 수험생이 자주 혼동하는 기관명 변형형 함정. Q15 전체에서

22%가 ③번을 잘못 선택한 것도 재정신청 통지 대상 규정의 미숙지.

▶ Q19 — 정답률 72% (고유 문항 2 위) |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

선택지	선택률	분석
③번 (정답)	72%	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"경찰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"는 취지의 증언 → 이는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에 불과.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 치 없음(대판 2009도1889)
②번 (주오답)	14%	양벌규정 행위자 vs 사업주 → §312③ 적용(공범관계 유사) → 맞는 진술. 14%가 이를 틀린 것으로 오판. 양벌규정과 §312③ 연결법리 미숙지

▶ 공범 진술의 핵심 구조: "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→ 피고인 부인 시 증거능력 없음 →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 증언해도 조서와 분리 불가". 수업시간에 수없이 강조했듯이 이 3단계 논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.

▶ Q17 — 정답률 77% | 증인신문 — 선서 없는 화상진술 위법성 치유 불가 (2024 년 최신판례)

①번 지문: "선서 없이 화상진술을 청취한 증인신문 → 위법이지만 피고인·변호인이 동의하고 사후 이의 없으면 위법성 치유" → ✕

판례(대법원 2024.9.12. 2020도14843):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증거 → 동의·이의 없음에도 위법성 치유 불가. 증거능력 없음.

▶ "동의가 있으면 위법이 치유된다"는 일반론을 증거조사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답. 2024년 9월 최신판례로 수험생이 미학습 가능성이 높았으나 정답률 77%로 비교적 변별 성공.

▶ Q18 — 정답률 75% |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

지문	선택률	법리 핵심
④ (정답)	75%	소유자·소지자·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 → §218 위반 압수물·사진 → 동의해도 증거능력 없음(대판 2009도10092). 영장주의 중요성상 동의 불문
② (오답)	9%	지문채취 먼저 → 이후 위법 압수 → 지문은 2차 증거 아님(대판 2008도7471). "먼저 채취 완료"가 핵심. 틀린 지문
③ (오답)	5%	절취 업무일지를 피해자가 대가지급 취득·증거제출 → 공익 실현 위해 허용, 피고인 수인해야 할 기본권 제한(대판 2008도1584). 틀린 지

		문
④ (오답)	9%	강제 채혈 후 영장 없이 알코올 감정 → 동의 불문 증거 사용 불가(대판 2009도10871). ①과 동일한 "동의 불문" 법리. 틀린 지문

▶ ①번과 ④번 모두 "동의해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"는 법리를 담고 있으나 ①번만이 정답(옳은 것). ②③④가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①이 정답. 위법수집증거에서 "동의 불문"의 예외 범위를 정확히 암기 필요.

▶ Q14 — 정답률 74% | 체포·구속적부심사

②번 지문: "구속적부심문조서 → 피고인 부동의 → 증거능력 없다" → ✕

판례(대판 2003도5693): 구속적부심문조서는 §311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,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의 문서로서 §315 제3호에 의해 부동의해도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.

▶ §311(공판조서 등) vs §315(당연 증거능력)의 체계 이해. "부동의해도 당연 증거능력"이 핵심. 정답률 74%로 비교적 변별에 성공.

▶ Q16 — 정답률 84% (고유 문항 최고) | 공판기일 절차

③번 지문: "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" → ✕

판례(대판 2009모1032):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 → 판결 전 소송절차 결정 → 즉시항고 허용 규정 없음 → 항고 불가. 항고장이 접수되면 항고기각 결정 해야 함.

▶ 같은 판례(2009모1032)가 Q13에서도 7일 기간 관련으로 출제. 하나의 판례에서 복수 쟁점이 출제된 전형적 패턴.

▶ Q20 — 정답률 83% | 제 3 자의 일방 동의 녹음

①번 지문: "제3자가 일방 동의로 녹음 → 증거능력 인정" → ✕

판례(대판 2002도123): 대화 당사자 간 일방 녹음(§3① 단서 예외)과 달리 제3자는 설령 일방 동의를 받아도 통비법 §3① 위반 → 증거능력 없음.

▶ "당사자 간 일방 동의 녹음(합법) vs 제3자 일방 동의 녹음(위법)" — 수험생이 자주 혼동하는 통비법 핵심 구별. 정답률 83%로 기본 판례로 분류.

V. 고난이도 문항 오답 패턴 분석 (Q1~Q13 공통 구간)

형사소송법 응시생 기준으로 공통 구간(Q1~Q13) 중 정답률이 낮은 4문항을 분석한다.

▶ Q8 — 정답률 46% (최저) | 긴급체포 후 조치

선택지	선택률	오답 이유 분석
①번	17%	"12시간 이내 승인" → 정확한 조문은 즉시 승인(§200의3②). 구속 후 조치의 시간 제한과 혼동
②번	17%	"48시간 이내 서면 통지" → 정확한 규정은 지체없이 서면 통지(§87·§200의6)
③번	18%	"긴급체포기간 동안 영장없이 압수" → 정확한 조문은 24시간 이내 (§217①). 오답 3지문에 거의 균등하게(17·17·18%) 분산 — 전형적 조문 미암기 패턴
④번 (정답)	46%	전화통지 후 재서면 통지 → 형사소송규칙 §51·§100. 개론(48%)과 거의 동일한 정답률

⇒ 개론(48%)보다 형사소송법(46%)이 2%p 더 어렵게 느껴진 문항. 오답이 ①②③에 균등 분산(17%-17%-18%) → "어떤 게 맞는 숫자인지" 자체를 모르는 수험생이 절반 이상.

▶ Q10 — 정답률 52% |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

선택지	선택률	분석
③번 (주오답)	23%	외국 법원 작성 증언녹취서 → §314 특신상태 요건 충족 가능 → 옳은 지문. 그러나 23%가 "외국 서류 = 증거능력 없다"고 잘못 판단하여 ③번을 정답으로 선택
④번 (정답)	52%	형사조정조서 피의자 진술 → §313·§312 모두 적용 불가(대법원 2024.11.14. 2024도11314). 개론 44%보다 8%p 높음. 형사소송법 응시생의 최신판례 학습률이 다소 높았을 것으로 추정

▶ 형사소송법에서 정답률 52%(개론 44%보다 8%p 높음). 2024년 최신판례(형사조정조서)를 학습한 수험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응시한 것으로 분석됨.

VI. 출제 구성 통계 분석

1. 지문 유형별 분석 (전체 80 개 기준)

구분	지문 수	비율	비고
판례(대법원+헌재) 지문	68	85%	Q14~Q20 고유 문항도 대부분 판례 기반
조문(법률+규칙) 지문	12	15%	Q8 전체·Q13ㄴ·ㄷ·Q15①③·Q14①③ 등

2. Q14~Q20 최신 판례 반영 현황

문항	판결번호	선고일	핵심 법리
Q17①	2020도14843	2024.9.12.	선서 없는 화상진술 → 동의·이의없음에도 위법성 치유 불가
Q17②	2020도7802	2024.7.25.	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→ 항소심 추가 증거조사 제한
Q19④	2023도3741	2024.1.1. 이전	대항법도 §312① "공범" 범위에 포함 → 내용 부인 시 증거 불가
Q16③	2009모1032	2009.11.	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 항고 불가 (Q13과 동일 판례 중복 출제)

▶ Q14~Q20에서도 2024년 최신판례 2건 직접 출제. 형사소송법 응시생은 수사절차부터 공범 진술까지 전 영역의 최신판례를 함께 학습해야 함.

Ⅶ. 수험 전략 제언

1. 형사소송법 vs 개론 학습 전략 비교

구분	형사소송법개론 (교정직 등)	형사소송법 (검찰직 등)
추가 학습 영역	Q1~Q20 전체	개론 Q1~Q13에 더해 체포·구속적부심, 재정신청, 위법수집증거, 공범 진술, 통비용 추가 필수
판례 학습 방향	결론 + 이유 함께 암기. 최신판례 집중	동일하나 §312 공범 진술 체계(①②③④ 비교), §218 임의제출 주체 제한 추가
고유 취약 영역	Q8·Q10·Q1·Q13 (동일)	Q8·Q10·Q1·Q13 + Q15(검찰항고 기관명) · Q19(공범 진술 독자성)

2. Q14~Q20 집중 암기 포인트

<input type="checkbox"/>	[Q14] 구속적부심문조서 → §315③ 당연 증거능력, 피고인 부동의해도 증거능력 인정
<input type="checkbox"/>	[Q15] 검찰항고 = 지방검찰청 경유 → 고등검찰청 검사장 (지방검찰청 검사장 ×)
<input type="checkbox"/>	[Q16·Q13]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 → 항고 불가 / 간이공판절차 배제(2009모1032 동일 판례 2문항)
<input type="checkbox"/>	[Q17·2024판례] 선서 없는 화상진술 → 동의·이의없음에도 위법성 치유 불가 (2020도14843)
<input type="checkbox"/>	[Q18] §218 위반 압수물 → 동의해도 증거능력 없음 / 강제 채혈 감정 → 동의 불문 증거 불가

<input type="checkbox"/>	[Q19]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"조서와 같은 내용" → 조서 진정성립 인정일 뿐, 독자 증거가치 없음
<input type="checkbox"/>	[Q20] 제3자 일방 동의 녹음 ≠ 당사자 일방 녹음. 제3자는 통비법 §3④ 위반 → 증거능력 없음